

### 조직 줄이고 권한 내려놓은 新 군사안보지원사 국민요구 부응할까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운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의 새로운 보안·방첩부대로 출발을 알렸다.

안보지원사는 1일 경기 과천에 있는 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

안보지원사는 창설과 함께 조직을 슬림화했다. 기존 기무사 인력(4200여명)에서 30%를 감축해 편제를 2900여명 수준으로 맞췄다. 부대 창설을 앞두고 간부 750여명을 원대복귀시켰고, 병사 580명은 전역시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줄여 나갈 계획이다.

장성 수는 기무사 시절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사령관(중장)과 참모장(소장)을 제외한 4명의 장성은 준장이다. 장성 자리인 육·해·공군본부 기무부대장 중 한 자리는 대령으로 순환 보직한다.

기무사에는 3·5·7차가 존재했지만 안보지원사에는 보안·방첩 분야 2개 처만 남고, 기존 각 3개실에서 4개실로 편성과 기능을 강화했다. 정치개입 논란 부서인 융합정보실과 예비역지원과는 해체했다.

기무사 시절 재정보정과 법무실 장만이었던 개방위 직위도 안보지원사에서는 기획운영실장, 육군 아전군사령부 부대장, 인사근무과장 등을 포함해 9개로 확대된다.

부대 창설과 함께 새로 마련한 훈령에는 기무사가 누렸던 막대한 권한을 내려놓고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훈령에는 ▲민간인·군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 활동 금지 ▲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금지 ▲특권외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수사권의 범위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사령관은 정치개입이나 민간인사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균형법상 '정치관계의 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형사고발하고, 징계와 원대복귀 등을 하도록 훈령에 명문화했다.

또 일선부대에 팽배했던 기무사 요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더는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훈령에 못 박았다.

정치개입이나 민간인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감찰실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유지토록 했다.

수사 범위도 향후 '군사법원법'의 10대 군관련 수사권 중 민간인과 관련된 남북교류 및 집회·시위 관련 수사권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 “文 대통령, 경제 파탄비난 ‘적폐청산’으로 관심돌려”

## 자유한국당 “지난 15개월간 소득 양극화 악화”

자유한국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국민경제 파탄으로 정부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적폐청산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경제는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여파로 고공파탄과 분배참사의 위기에 있는 등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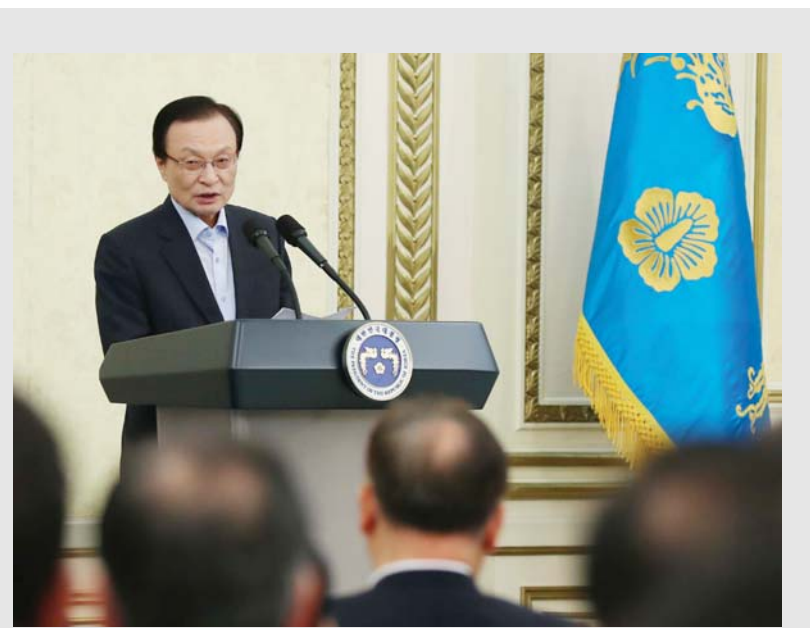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향후 국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시대소명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난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득 양극화는 더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남탕과 적폐청산에 의존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화합하는 통합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협치·전국 순회·당정청...

## 숨 가뻐던 이해찬 대표의 첫 주

2일 취임 일주일을 맞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복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등 전 대통령 묘역 참배부터 영호남 횡단 일정, 고위 당정청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취임 하루 만에 최고위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새 지도부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당직자를 인선하는 등 당 재정비에 속도를 냈다.

첫 공식일정인 지난달 27일에는 현충원을 찾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협치를 요청했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까지 참배한 것은 본인의 ‘불통·강성’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여당 대표로서 ‘통합·소통’ 이미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영호남 등 전국을 순회하는 광복행보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북 구미를 지역 순회 일정의 첫 장소로 선정한 점이 인상 깊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정치의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첫 시장을 배출한 곳인 만큼 대구·경북(TK)까지 당세를 확장, 2020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후 광주, 충남, 경남 봉하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민

심을 청취하는 등 일각에서 거론된 건강이상설이 무색할 정도로 광복행보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당정청 관계에서 여당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나흘 만에 가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는 등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며 정부 예산안에서 혁신성장 분야가 부족하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또 자신이 제안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정리화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주도권을 잡고 기선을 제압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이번주에도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우선 경선 내내 ‘윌립’을 강조한 만큼 경쟁자였던 김진표, 송영길 의원과 만나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과 당무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7일에는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해식 당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평인사 원칙을 내세운 만큼 3,4일에 김진표, 송영길 의원과 각각 비공개로 만나 두 의원이 내세운 공약과 당직자 인선에 대한 견해를 들어볼 계획이다. 이후 주요인사 주요인선 인선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귀국 앞둔 홍준표 “국민과 직접 소통할 것”

### 이달 15일 귀국 예정 “다른 소통 방법도 고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은 언론에 한 줄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그는 이달 15일 귀국을 앞두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

하는 다른 다양한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31일 경제민주화에 대해 쓴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며 언론을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어느 언론에선 이를 보도하면서 헌법 제 119조 제1항 경제 자유화가 제119조 제2항 경제 민주화보다 앞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가 경제 자유화가 우선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을 보고 이연실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조문은 원칙과 보칙, 또는 예외를 기술할 때 원칙은



앞, 또는 본문에 쓰고 보칙과 예외는 그 다음 또는 단서에 쓴다는 기본 원칙도 모르고 무지하게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주소에 상황”이라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장관 및 여당 의원들과 함께 파이팅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